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1일 월요일 (음 4월 6일) 제179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취업도 '세대 불균형'

청년고용률 줄고 노인고용률 늘고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간접 지원에 그쳐

지자체 공공근로 확대에 노인 일자리는 늘어

청년들의 취업이 나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반면 노인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벌이는 공공근로 확대에 힘입어 증가 추세다.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노인 고용 확대는 갈수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청년층과 사뭇 대조적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고용률은 지난 1분기 기준 59.4%이다. 10년 전인 2007년 같은 분기 58.6%에 비해 0.8% 증가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대로라면 취업자가 다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20~29세 청년 고용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1분기 청년 고용률은 59.9%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56.9%로 3% 하락했다.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10년 새 3명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대전(4.8%)이나 충북(4%), 광주(1%), 경남(0.9%), 강원(0.2%) 등 5개 지역은 청년 고용률이 10년 새 소폭 상승했지만, 나머지 11개 시·도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전남의 청년 고용률은 10년 새 무려 11.8% 떨어졌고 충남 7.3%, 경북 6.8%, 서울 5.6%, 경기 3.2%, 제주 2.8%, 전북 2% 하락했다.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한층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10년 새 상승세를 유지했다. 2007년 1분기 34.7%에서 올해 1분기 36.4%로 1.7% 상승했다.

대전의 경우 무려 12.3%나 치솟은 것을 비롯해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 노인 고용률이 눈에 띄게 상승곡선을 그렸다.

노인 고용률 증가는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벌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덕분이다. 공동 작업장 근무나 스콜존 교통 지원, 일선 학교 급식 지원 등에 참여하는 노인이 점차 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 관련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탐방 프로그램이나 구인·구직 만남 행사, 중소기업 신입 사원의 이직을 막기 위한 연수 등 간접 지원에 그칠뿐 노인 일자리처럼 직접적인 고용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청년들을 선발, 행정 기관 정보화 업무, 도로환경 정비, 문화유적지 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 건축물 현황 조사 등을 맡기고 있지만 대부분 한시적이다.

일회성 일자리에 그치다보니 청년 고용률 하락을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털어놨다. /인재용 기자

11월까지 전북상품 특별판매전

전북도는 11월까지 전주역, 익산역,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등 5개소에서 전북우수상품 KTX 주말장터 운영 등 찾아가는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 전북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 인지도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판매전에는 도지사인증상품을 포함해 지역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전북도 우수상품 240여개 품목이 판매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9일 오후 익산시 익산역 광장에서 진행된 익산지역 집중유세에서 시민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엄지척을 하고 있다.

5·9 촛불대선 D-8 문재인 후보, "실망 드리지 않겠다"...전북 지지층 결집 나서

“원하는건 민주개혁세력의 확실한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29일 전북을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문 후보는 강병원·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가수 나훈아가 노래했던 '고향의' 작곡가 임종수씨와 함께 익산역을 찾았다.

문 후보는 "전북은 제게 늘 고티운 곳이다. 압도적인 지지로 두 번의 민주당 정부를 만들어 주셨다"며 "꼭 정권 교체 해내고 성공한 대통령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전북에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익산 또 전북이 단호하게 결정해 달라. 익산은 부패기득권 세력의 꼬리가 되는 것 원치 않는다"며 "전북은 민주개혁세력의 확실한 정권교체를 원한다. 이것이 전북의 마음이다. 이것이 김대중의 정신이다. 확실하게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후보는 "5월 9일 반드시 정권교체 하겠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전북과 함께 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지역 맞춤형 키워드는 '인사차별'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인사차별...통합 가로막아"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등 지역 발전 청사진도 내놓아

정당별 대선후보 부인들도 전북 방문해 지지 호소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는 장관 14명이 전북 출신이었고 총리도 2명,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도 배출했다"고 운을 뗐 뒤 "이명박 정부 때 7명으로 줄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고작 차관 4명이 전부였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사차별이아말로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다. 지난 9년간 꼭 막았던 걸, 저 문재인이 뚫겠다"며 호남 인사를 중용하는 '대통령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김제(중자 농기계)·

정읍(미생물)·새만금(첨단농업)·익산(식품산업) 등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육성 ▲미륵사지 주변 정비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의 부인들도 지난 28~29일 전북을 방문해 바쁜 일정을 보냈다. <관련사진 3면>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는 29일 전북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배식 봉사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김정숙씨는 한옥마을을 찾아 황순 이석 황실문화재단 총재를 만났으며, 남부시장을 방문해 지역민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등 포심 풀어안기에 힘을 쏟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씨도 지난 28일, 친정인 전북을 찾아, 남편인 홍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원불교 대각개교

절 행사에 참석한 뒤, 전주풍남문과장과 남부시장, 한옥마을을 돌며, 거리 유세를 펼쳤다.

이씨는 "남편에게 표를 몰아주면, 처갓집 기둥에 대고 큰 절을 할 것"이라며, "전북의 사위 홍준표에게 전북의 꿈과 미래를 맡겨 달라"고 부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씨와 김씨를 똑 빼닮은 딸 안설희씨는 이날 정오에 익산시 모현동 익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점심 배식 봉사를 했다. 이들 모녀는 밝은 표정으로 배식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김씨는 군산 옛 역전시장과 전주 한옥마을 등을 두루 다니며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과 제54회 전북도민체전 개막식에 참여해 도민들과 시간을 함께 했다.

/인재용 기자

매일 INDEX 4면 -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 탄력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아름다운 선거

제50회 황도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2017.5.12(금) - 14(일) 황도현전적지 및 정읍시 일원

*50주년 기념식 및 축하공연 5월 12일(금) 17시 30분

일정표	시간	행사명	장소
사전행사 5월 11일(목)	11:00	123주년 동학혁명황도현전승기념식(천도교)	기념탑
	14:30	동학농민혁명포럼 '동학농민혁명 전국화 방안 모색'	교육관
5월 12일(금)	14:00	특별기념전 '지나온 50년 나아갈 50년' 오프닝	신말목정터
	16:30	기획전시 '동학농민혁명, 민족운동으로 꽃피우다'	기념관
	17:30	제7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식	아외특설무대
	19:45	50주년 황도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축하공연	북두광장 (체세문 앞)
	19:45	50주년 정읍시립국악단 특별공연 '천명'	북두광장 (체세문 앞)
5월 13일(토)	10:00	황도현 학생백일장, 사생실기, 서예대회	사발동문광장
	13:00	무명동학농민군위령제	고부면 신중리
	14:00	정읍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아외특설무대
	15:00	구민사 갑오선열 제례	구민사
	17:00	정읍시립국악단 '북두의 말, 옥이'	교육관
	18:30	청소년 정기발발페스티벌	아외특설무대
	19:45	유익&복권서트 '음악과 함께 떠나는 세계혁명'	아외특설무대
5월 14일(일)	09:00	제20회 황도현 전국농악경연대회	사발동문광장
	10:00	가족과 함께하는 전국역사퀴즈대회	아외특설무대
	13:30	제11회 황도현 전국청소년토론회 결선	교육관
	14:00	정읍무형문화재 발표회	아외특설무대
16:00	정읍문화예술인한마당	아외특설무대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취소/변경될 수 있습니다.